

# 광주·전남선수들, 전국체전서 신기록 쏟아냈다

광주시청 육상, 한국신기록·대회신기록...다관왕 7명·다연패 5종목 전남, 이은빈 3관왕·해머던지기 박서진 6연패 등 금메달 43개 획득

‘전국 체육인들의 축제’ 제105회 전국체전이 7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광주 선수단은 17일 끝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8개, 은메달 54개, 동메달 69개 등 총 16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최종 13위를 기록했다.

‘육상 최강팀’ 광주시청은 1600m 혼성 계주 한국신기록, 남자 400m 계주와 200m 대회신기록 작성으로 다시 한번 위상을 보여줬다.

4관왕에 오른 고승환을 포함해 7명의 다관왕이 나왔고, 남자 400m 계주 4연패 등 5개의 세부종목에서 다연패도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고승환은 200m, 400m 계주, 1600m 계주, 1600m 혼성 계주에서 우승하며 4관왕에 올랐다.

모일환은 이번 대회 3관왕을 차지했고, 김국영, 김태호, 이재성, 강익민, 장지용이 각각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전국체전이 끝났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고 동계 훈련을 통해 내년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체조 유망주 문건영(광주체고)도 발목 부상을 이겨내고 3관왕에 올랐다.

남자18세이하부 개인종합과 평행봉에서 3연패, 철봉에서 2연패를 달성한 문건영은 안마와 도마 은메달과 마루 동메달도 추가했다.

양궁의 오예진(광주여대)도 여자대부 70m와 30m에서 2관왕에 올랐고, 50m와 개인전에서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조정에서는 광주체고가 4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체고는 대회 여자18세이하부 쿼드러플스컬(김별·김정민·김지선·서에서), 더블스컬(김정민·김승현), 더블스컬경량급(서에서·김지선), 싱글스컬(김승현)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근대5종 국가대표 전용태(광주시청)는 남일부 개인전(4종) 금메달에 이어 소속팀 성진수·김영석과 함께 뽀 계주(4종)에서도 1위에 오르며 2관왕에 등극했다.

복싱 남일부 라이트웰터급에서 금빛 펀치를 선보인 한영훈(광주동구청)과 육상 원반던지기 여일부가 출전한 김지인(한국체대·광주)은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 시민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덕분에 체전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남은 금메달 43개, 은메달 42개, 동메달 84개로 총 169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최종 12위를 기록했다.

‘한국 육상의 미래’ 이은빈(전남체고)은 여자18세이하부 100m, 200m, 1600m 계주 1위에 오르며 3관왕에 등극했고 최지선(전남체고)은 여자18세이하부 400m와 1600m 계주 금메달로 2관왕에 올랐다.

전남 우수 운동진(산타56kg·전남도청)과 육상 해머던지기 강자 박서진(목포시청)은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우유김민수(산타60kg·전남도청)와댄스스포츠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육상에서 1600m 혼성계주 한국신기록을 달성한 광주시청 육상팀. 왼쪽부터 고승환, 한정미, 심재용 감독, 강디솔, 모일환.

(광주시체육회 제공)

‘최강 커플’ 김민수·김나연(라틴3종·순천시댄스스포츠연맹)은 3연패를 기록했다.

전남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 단체종목 금메달을 더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FC목포는 이날 축구 남일부 결승에서 강릉시민축구단(강원)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4-2로 승리하면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의 한국전력공사 럭비비단도 이날 일반부 결승에서 만난 OK윌맨 럭비비단(광주)을 35-14로 꺾으며 1위에 올랐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체육 경쟁력을 위해서는 ‘팀 창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전남체육을 젊어질 팀을 창단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체전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양궁 임시현(한국체대·서울)이 안았다.

임시현은 여대부 50m에서 대회신기록(347점), 60m에서 세계타이 기록(355점)을 세우며 정상에 오른 뒤, 단체전과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4관왕에 등극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V리그 19일 개막...페퍼스, 막내의 반란 꿈꾼다



男 대한항공 5연패·女 페퍼스 ‘탈꼴찌’ 관심  
중간릴리 판독·그린카드 도입 등 변화 꾀해

동계 스포츠의 꽃, 프로배구가 19일 다시 팬들을 찾아온다.

올해로 21번째 시즌을 맞는 2024-2025 V리그는 19일 개막해 2025년 3월 20일까지 계속된다.

6라운드 일정으로 진행되는 정규리그에서는 팀당 36경기씩 소화한다. 이후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챔피언결정전에 오르게 된다.

개막일인 19일 남자부는 오후 2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대한항공과 OK저축은행 경기, 여자부는 오후 4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치르는 현대건설과 흥국생명 경기로 V리그 포문을 연다.

남자부에서는 프로배구 최초로 4연승 통합우승을 이룬 대한항공이 5연패에 도전한다.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이지만 방심할 수 없다. 지난 2023-2024 시즌 정규리그 4위에 그쳤던 현대건설이 최근 막을 내린 ‘2024 통영·도드람 컵대회’ 결승전에서 대한항공을 꺾고 11년 만에 왕좌에 올랐다.

지난 15일 남자부 미디어데이에서 7개 구단 감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현대건설은 5개 팀으로부터 ‘우승후보’로 지목받았다.

여자부에서는 2021년 창단 이후 3연승 최하위에 머물렀던 막내 구단 AI 페퍼스가 ‘탈꼴찌’를 노린다.

이번 시즌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힌 장소연호는 ‘두 자릿수 승수’를 목표로 경기에 임한다.

페퍼스는 비시즌 기간 감독 선임과 선수진 보강으로 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쿼터와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장위(196cm-MB)와 바르바라 자비치(191cm-OH)를 전제 1순위로 선발하며 ‘높이’에서 우위를 선점했다.

이외에도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배구여제’ 김연경을 보유한 흥국생명, 짜임새 있는 전력을 구축한 정관장 등 7개 구단이 올 시즌 전력 평가

준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상대적 약체’로 꼽히던 페퍼스와 GS칼텍스가 재 정비한 전력으로 보여줄 만한 플레이가 기대된다.

새 시즌 새로운 변화도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번 시즌부터 중간릴리 비디오판독 횟수를 늘리고 그린카드를 도입하는 등 규칙 개선에 나선다.

이번 시즌부터는 비디오 판독 가능 횟수가 세트당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릴리 종료 후에만 가능했던 판독 신청은 릴리 중간 즉시 요청할 수 있다.

또 불필요한 비디오 판독 시간 단축을 위한 ‘그린카드’가 도입된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장소연 감독은 지난 16일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정진을 제고하고 경기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볼배구 진출’을 목표로 6개월 대장정을 떠나는 페퍼스는 오는 22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25일 오후 7시에는 안방인 페퍼스타디움에서 정관장과 홈 개막전을 펼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광주FC, 대구와 ‘달빛더비’ 생존 싸움 시작

오늘 홈에서 K리그1 34라운드

‘생존’을 목표로 파이널 라운드에 나서는 광주 FC가 ‘달빛더비’로 첫 일정을 소화한다.

광주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3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정규리그 7위에 자리하면서 파이널B에서 스플릿 라운드를 치르게 된 광주(승점 43)는 첫판에서 5점 차 밖에 있는 9위 대구(승점 38)를 만난다.

광주는 아쉽게 파이널A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파이널B 선두 자리에서 마지막 5경기를 치르게 됐다.

이정호 감독은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승수를 ‘2승’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전에서 승점 3을 더한다면 광주는 여유롭게 다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22일에는 조호르 FC(말레이시아)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ACLE) 3차전까지 뼈대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구전 기선 제압이 필요하다.

올 시즌 광주가 대구에 1승 2패로 열세를 보였지만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ACLE 가와사키 원정에 이어 33라운드 서울전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반전을 이뤘다.

또 연습 분위기 속 모처럼 넉넉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을 끝냈다.

광주는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살림꾼’ 정호연, 이희균과 함께 최정력으로 중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앞선 서울전에서 모처럼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부담감을 덜어낸 이희균과 올 시즌 광주 전 경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브리엘도 든든하다.

허술에도 시간이 쏠린다.

시즌 중반 센터백으로 변신했던 허술은 다시 최전방 공격수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울전에서는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등장했다.



광주FC 허술

공격적인 빌드업과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정호 발’의 핵심이 된 센터백 변준수도 기대를 모은다.

기록 많은 시즌을 보냈지만 이정호 감독의 전술이 자리를 잡으면서 광주가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는 상승세를 이어 역시 분위기가 좋은 대구를 압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도 지난 33라운드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4-3 역전승을 거두면서 베스트 팀, 베스트 매치를 장식했다. 33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던 세징야와 에드거는 광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두 외국인 콤비는 개인 기량을 앞세워 대구 전술을 극대화하고 있다. 광주가 끈끈하고 정교한 조직력으로 세징야, 에드거 콤비를 막고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화합의 장’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성료

전국 지체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3회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 전국 17개 시도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60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나누나 주종합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미니파크골프·한국·술판·투호·빅볼골리·볼링·탁구 등 6개 종목에 650여명 선수단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 겸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

해 22개 시·군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권익 보호에 앞장선 노고를 인정받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 지체장애인체육이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화합과 단결, 지역 간 소통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